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개발과 타당화 연구*

김 미 진¹⁾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 어린이집

정 옥 분²⁾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본 연구는 한국적인 다문화상황에 적합한 일반가정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 예비문항은 문헌고찰과 함께 심층면접을 통해 살펴본 다문화에 대한 아동의 수용적 태도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는데,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 보완되었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의 의미전달 정도를 검토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 경기도, 인천에 소재한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392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요인분석과 내적 합치도, 반분신뢰도를 구하였다. 또한 74명의 자료를 가지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내용타당도의 증거가 확인되었다. 또한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 33문항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 수용성 하위요인은 다문화 관계형성능력, 다문화 인식, 다문화 개방성, 다문화 공감으로 정리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 반분신뢰도, 그리고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 척도의 신뢰도가 바람직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다문화가정, 다문화 수용성, 척도개발

* 본 논문은 2010년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

1)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 어린이집 시설장

2)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E-mail : obchung@korea.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세계는 인터넷의 보급과 케이블 TV, 위성채널 덕분에 자신의 일상을 다른 나라 사람과 실시간 공유하게 되면서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주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인구증가 중 35.9%가 국제이주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Zea, Asner-Self, Birman, & Buki, 2003).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국사회도 이제 더 이상 단일민족사회가 아니라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은 1998년 14만 7,914명으로 인구 1,000명당 3.1명 수준이었다. 2008년에는 85만 4,007명으로 인구 1,000명당 17.2명이고, 앞으로 10년 뒤에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3.6%로 인구 1,000명당 35.8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다문화가 급격히 진행된 결과이다(동아일보, 2009년 2월 2일자).

다문화의 문제가 한국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다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태도는 사회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문화적응이란 접촉하는 두 개 이상의 집단 쌍방 모두에게 일어나는 과정이니만큼(Berry, 2001),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정 아동 당사자뿐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환경적 측

면도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일회성에 그치고 있고, 다문화가정의 특수성을 인식한다기보다는 한국사회, 한국문화만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선 학교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지원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 주된 이유는 다문화가정의 아동들만 참여 시킴으로써 오히려 다른 학생들과 구분 지어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일반 가정 아동들도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만 주어지는 소수의 특혜에 대해 반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었다(조혜영, 이창호, 권순희, 서덕희, 이은하, 2007).

따라서 이제는 다문화가정의 아동들로만 한정지어 일방적으로 한국적인 것만을 강요하는 다문화교육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집단의 구성원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집단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른 민족, 다른 인종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최근 교육영역뿐 아니라 직업영역에서도 여러 문화들 간에 조화를 이루고 잘 적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Sercu, 2004). 다문화교육의 흐름도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소수집단의 사람들에 대해 민주적인 태도와 가치관, 행동

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Banks, 1993). 그러므로 다문화시대에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민족적, 인종적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적이고 차별적인 태도보다는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의 발달이 매우 중요하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에 대해 아직까지 연구자들 간에 합의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용어도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예를 들어, 비교문화 적응성(cross-cultural adaptability; Kelley & Meyers, 1995), 문화 간 감수성(intercultural sensitivity; Hammer, Bennett, & Wiseman, 2003), 다문화 효능성(multicultural effectiveness; Van der Zee & Oudenhoven, 2000), 다문화 유능성(multicultural competence; Sercu, 2004)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의 공통점은 문화차이를 이해하고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없으며, 문화가 다른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행동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의 개념을 아동이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적응능력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문화적 수용성이나 감수성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일반 성인보다는 오히려 다문화환경인 21세기에 대부분의 삶을 보낼 아동이 다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이 시기의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 관계는 다른 민족이나 인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그 태도가 청년기, 성인기까지도 이어진다(Ellison & Powers, 1994).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이 심화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민족적, 인종적 소수집단을 수용하지 못하고 계속 편견적이고 차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더욱 조장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기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아동기에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을 하고 여러 다문화가정과 접촉할 기회를 많이 가져서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키워나간다면 민족적, 인종적 소수집단에 대한 수용성의 발달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이루어진 일반인들의 태도와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인식에 관한 연구(모경환, 황혜원, 2007),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문화 간 감수성을 살펴본 연구(김옥순, 2008)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연구(양계민, 2009), 일반 성인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김혜숙, 2007)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보편적인 가치로 대체하여 살펴본 연구(송미영, 2010) 등이 있다.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는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보다 주로 다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박성연, 2001; 최미숙, 김경숙, 윤현숙, 2008)이 수행되었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타문화에 대한 태도 변화가 목적이었으나 그 효과를 50년대나 60년대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이라는 대립구도로 이루어진 인종에 대한 태도 척도(Preschool Racial Attitude Measure II)(Williams, Best, & Boswell, 1975)를 수정하여 평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다문화상황이나 다

문화가정의 속성은 오랫동안 다문화가 진행되어 온 서구사회와 다르며, 서구에서 진행된 다문화가정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문화적응에 있어서도 서구사회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나 척도들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곽금주, 2008).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된 기존 척도의 제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응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소수문화 집단구성원에게 초점을 맞추어왔고, 주류문화 집단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간과하여 주로 소수민족의 입장(Cross, 1971; Suinn, Ahuna, & Khoo, 1992)에서 개발되어 왔다.

둘째, 다문화사회의 진행에 있어서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서구에서 개발된 척도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과연 이 척도가 한국의 다문화상황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셋째, 최근 들어 국내에서 다문화 수용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다문화 수용성의 개념과 구성요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마다 국내 소수 집단의 유형도 다르고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는 방식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 여성,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송미영(2010)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을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어려운 외국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 자녀, 새터민, 중국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양계민(2009)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을 종족 배제주의와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로 측

정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김이선, 황정미 및 이진영(2007)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을 사회적 거리감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다문화사회를 이루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이주노동자, 새터민은 각기 다른 특성과 배경을 갖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각 대상 집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문화 수용성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된 대부분의 척도들은 교사나 상담가 등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된 것(Hennry, 1986; Johnson & Johnson, 1996; Marshall, 1996; Ponterotto, Meldelsohn, & Belizaire, 1998)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그 결과 유아를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가 대신 사용되거나 혹은 신뢰도나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은 채 연구자가 임의로 제작한 척도가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프로그램은 시작되었지만 그 효과를 측정하는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문제로 인해 연구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무엇보다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켜주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척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에 앞서 척도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맥락아래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결혼가정, 이주노동자, 새터민이라는 세 가지 다문화가정 유형 중에서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가 가장 많은 집단인 국제결혼가정(교육인적자원부, 2007)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으로

한정하여 한국의 소수집단 중 하나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구성요인들을 규명하고 이에 기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다문화 수용성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수용성 척도의 한계를 극복하여 한국적인 다문화상황에 적합한 다문화 수용성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는 어떤 요인으로 구성되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의 타당도 관련 증거들은 적절한가?

연구문제 3.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의 신뢰도 관련 증거들은 적절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다문화가정 아동의 지역별 초등학교 재학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서울 순으로 나타났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서울 및 주변도시(경기도 안산·용인, 인천)에 소재한 5개 학교 15학급의 4~6학년 남녀학생 464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고 모두 회수하였다.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Piaget의 인지발달단계에 따라 아동후기가 되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 감정, 인지 등을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조망수용능력을 습득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저학년의 경우 아직 질문지 형식의 측정도구에 익숙하지 않아서 연구의 목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회수된 질문지 중 일반가정 아동이 아닌 다문화가정 아동의 응답 자료와 부실하게 기재된 자료 등을 제외한 392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성별은 남학생(52.8%)이 여학생(47.2%)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학년별로는 6학년(37.0%), 5학년(31.9%), 4학년(31.1%) 순으로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대상자 수 (명)	백분율 (%)
성별	남	207	52.8
	여	185	47.2
학년	4학년	122	31.1
	5학년	125	31.9
	6학년	145	37.0
연령	9세	55	14.1
	10세	117	29.8
	11세	151	38.5
	12세	68	17.3
	13세	1	0.3
	서울	78	19.9
거주 지역	경기	252	64.3
	인천	61	15.5
	기타	1	0.3

나타났다. 연구대상 아동의 거주 지역은 경기도(64.3%)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서울(19.9%), 인천(15.6%) 순이었다. 연구대상 아동이 다문화가정 아동과 접촉한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아동과 같은 반이 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88명의 아동(22.4%)이 다문화가정 아동과 같은 반이 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 연구절차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 예비문항 구성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의 구성요인을 탐색하고 예비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우선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국내외 문헌 및 기존 척도를 고찰하였다. 또한 서구사회와 다른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부모, 교사, 일반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기간은 2008년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일반가정 아동의 수용적 태도를 살펴보았다.

국내외 문헌 및 기존 척도의 고찰과 심층면접을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문항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예비문항은 두 차례에 걸쳐 내용타당도를 검증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몇 차례 수정 보완되었다.

예비조사 및 본 조사

본 조사에 앞서 2009년 6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서울 및 경기, 인천 지역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 13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를 실시하였다.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개발을 위한 본 조사는 2009년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6학년 남녀학생 464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질문지는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작성하도록 한 후 수거하였기 때문에 100% 회수되었다. 회수된 질문지 중 부실하게 기재되었거나(2부), 질문지 작성 중간에 응답을 그만 두거나(6부), 패턴화된 응답을 한 경우(53부), 동일한 응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한 경우(7부), 일반가정 아동이 아닌 다문화가정 아동인 경우(4부)를 제외한 392명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다문화 수용성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18일, 경기도에 있는 1개 학교 4, 5, 6학년 각 1학급, 총 84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수업시간에 질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모두 그 자리에서 수거하였다. 그리고 3주 후에 같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시 질문지를 수업시간에 배부하여 작성하게 한 후 모두 수거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1차 검사 시 질문지와 쌍을 맞출 수 없거나 부실하게 기재된 질문지, 하나의 번호에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7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보았다.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개발과 관련하여 타당도 검증을 위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내용타당도를 구하였다.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문항 전체의 평균 및 표준편차, 각 문항 응답을 이용한 상대도수분포(%)를 고려하여 문항 양호도를 검토한 후 원상관행렬을 검토하고 반영상관계수, Kaiser-Meyer-Olkin(KMO)의 표본적절성 측정치, 그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통계치를 산출하여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인지를 확인하였다.

요인분석은 공통요인모형에서 단일주축분해법을 사용하였고, 공통성(communality)의 초기 값은 다중상관제곱치(SMC)를 사용하였으며 요인의 회전은 promax 방식으로 사각회전하였다. 또한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척도의 내적 합치도 지수인 Cronbach's α , 반분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이상의 자료 분석에는 SPSS 12.0을 주로 이용하였고, 단일주축분해법을 이용한 공통요인 분석은 SAS 9.2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의 구성요인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의 구성요인 및 예비문항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첫째,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 및 척도의 문항들을 분석하고 참고하였다. 대표적으로 Henry (1986)의 문화다양성 인식검사(Cultural Diversity

Awareness Inventory: CDAI), Van der Zee와 Van Oudenhoven(2000)의 다문화 성격검사(Multicultural Personality Questionnaire: MPQ), Chen과 Starosta (2000)의 문화감수성 척도(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ISS), Munroe와 Pearson(2006)의 Munroe다문화태도 척도(Munroe Multicultural Attitude Scale Questionnaire: MASQUE) 등을 참고로 하였다.

둘째, 오래전부터 다문화사회를 이루어 온 서구사회와 다른 한국사회의 다문화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아동의 수용적 태도를 살펴보았다. 심층면접을 실시한 이유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연구 대부분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모습을 보고하면서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 양쪽의 입장을 모두 반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부모나 교사 등 이들과 접촉하는 주변 인물들이 가진 태도나 인식에 대한 종합적인 현장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심층면접은 다문화가정 아동 6명, 결혼이민 여성 11명, 교사 3명, 일반가정 아동 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면접소요시간은 1명당 평균 90분 정도였다. 질문내용은 다문화가정 아동이 실제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나타나는 심리사회적 특성과 다문화에 대한 일반가정 아동의 수용적 태도를 살펴보았다. 내용은 주로 외모차이에 대한 생각,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일반가정 아동에게 바라는 점, 한국에서 자녀양육의 어려움, 자녀의 학교생활, 일반가정 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과의 관계,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과 태도, 다문화가정 아동과의 접촉여부, 한국인의 정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면접내용은 녹음을 하고 노트에 전사(轉寫)하였다. 자료를 범주화하기 위하여 기록된 내용을 반복하여 읽어가면서 공통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나 유사한 경험을 토대로 다문화에 대한 일반가정 아동의 수용적 태도를 몇 개의 범주로 나누고 유목화 하였다. 분석한 자료는 아동학전공 교수 2명에게 분석내용을 의뢰하였고,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범주화체계를 재점검하고 수정하였다.

그 결과,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 외모에 대한 편견이 심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공감미 부족하며, 다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낮았고, 다문화가정 아동과 소극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서현, 이승은, 2007; 양순미, 2007; 오성배, 2007; 이영주, 2007; 이진숙, 2007)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보이는 적응 상 어려움의 원인은 주로 아동 개인의 성격문제로 보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본 심층면접 결과를 보면, 다문화가정 아동이 보이는 부적응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반가정 아동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수용성 척도의 문항을 구성하는 데 참고하였다.

2.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의 타당도

내용타당도

국내외 문헌 및 관련 척도를 검토한 결과와 함께 심층면접을 통해 살펴보았던 다문화에 대한 아동의 수용적 태도를 바탕으로 구성된 다문화 수용성 척도 예비문항에 대해 아동학

관련 전문가에게 두 차례에 걸쳐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1차 검토에서는 3명의 아동학 전공교수에게 내용타당도 및 문장표현 방식을 검증받았다.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의 예비문항이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적합한지, 아동이 문항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문항내용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지는 않는지 등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예비문항 중 일부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였으며 또한 각 요인별로 새로운 문항을 첨가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90문항으로 시작한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의 예비문항은 78문항으로 변경되었다.

2차 검토에서는 5명의 교육학, 심리학, 아동학 전공교수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1차에서 검토된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의 예비문항을 대상으로 다시 문항내용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문항의 의미가 중복되거나 불분명한 경우를 삭제하여 78문항에서 73문항으로 수정하였다.

두 차례에 걸쳐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은 다문화 수용성 예비문항을 가지고 서울 및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13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이 문항에 사용된 일부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더 쉬운 단어로 변경하거나 뜻을 풀이하여 첨부하였다.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의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조금 그렇지 않다(2점)’, ‘약간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이 높

음을 의미한다.

구성타당도

내용타당도의 증거가 확인된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예비척도(73문항)에 대해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392명을 대상으로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요인분석에 앞서 문항양호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각 문항 응답을 이용한 상대도수분포(%), 문항-전체 상관, 그리고 문항 제거 시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고, 변수들 간 상관관계와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평균이 너무 높은 문항(3.5 이상), 상대도수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친 문항(한 번호에 60%이상 응답된 경우), 문항 제거 시 내적 합치도가 높아지는 문항,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문항 등 26문항을 제거하였다. 또한 Kaiser-Meyer-Olkin(KMO)의 표본적절성 측정치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통계치를 산출하여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인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 수용성 척도의 문항은 요인분석에 매우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KMO=.951;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chi^2(703)=6571.28, p<.001$).

다음으로 척도 구성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공통요인모형에서 단일주축분해법을 사용하였고, 요인의 회전은 promax방식으로 사각회전하였다. 그 결과, 고유치(eigen value)와 각 요인의 설명분산은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요인의 수를 결정할 때 고유치가 1이하인 모든 요인들을 제거하는 카이저(Kaiser)방법은 요인의 수를 지나치게 많이 혹은 적게 산출하게 되므로(정옥분, 2008; Zwick & Velicer, 1986), 스크리 검사, 누적분산비율, 해석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였다. 표 2를 살펴보면, 4요인과 5요인 사이, 6요인과 7요인 사이에서 고유치 차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누적분산비율을 살펴보면 4요인까지에서 전체 분산의 86%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스크리 검사 및 해석가능성을 모두 고려해 본 결과, 4개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요인의 개수를 4로 두고 요인구조를 산출하였다. 그 다음으로 각 요인 내 요인부하량이 .30

표 2. 다문화 수용성 척도 예비문항의 요인분석 후 고유치 및 설명분산

요인	고유치	고유차이	설명분산	누적설명분산
1	15.383	14.004	0.714	0.714
2	1.379	0.432	0.064	0.778
3	0.947	0.073	0.044	0.822
4	0.875	0.107	0.041	0.862
5	0.767	0.069	0.036	0.898
6	0.698	0.146	0.032	0.930
7	0.553	0.039	0.026	0.956
8	0.514	0.038	0.024	0.979

표 3. 다문화 수용성 척도 최종문항의 회전 후 요인행렬표

번호	문항내용	요 인				
		1	2	3	4	b^2
34	우리 반에 다문화가정 아동이 있다면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을 것이다.	.756	-.004	.081	-.021	.613
30	다문화가정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모임이 있다면 갈 것이다.	.744	-.124	-.098	.019	.416
27	다문화가정 아동이 고민을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준다.	.717	-.012	-.017	.098	.578
26	집에 갈 때 우리 집과 방향이 같으면 다문화가정 아동과 같이 갈 것이다.	.703	-.014	.033	.076	.588
44	우리 집에 다문화가정 아동을 놀러오라고 할 수 있다.	.631	.295	-.019	-.140	.590
39	다른 친구들에게 다문화가정 아동을 내 친구라고 소개할 수 있다.	.602	.151	.180	-.056	.618
62	내 생일에 다문화가정 아동을 초대할 것이다.	.561	.384	-.123	-.042	.596
29	다문화가정 아동이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내 것을 빌려줄 수 있다.	.540	.043	.089	.145	.561
15	다문화가정 아동과 같은 반이 된다면 짝궁이 되고 싶다.	.525	.031	.171	.015	.491
35	다문화가정 아동이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면 가르쳐 줄 수 있다.	.522	.164	.056	.069	.567
53	다문화가정 아동이 우리나라 글을 잘 읽지 못하면 도와줄 수 있다.	.481	.225	.051	.104	.597
54	다문화가정 아동이 자기 집에 놀러오라고 하면 갈 것이다.	.471	.352	-.078	.002	.495
19	다문화가정 아동이 잘하는 것이 있다면(예: 달리기, 그림그리기 등),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다.	.412	-.056	.136	.274	.445
63	다문화가정 아동이 외모가 다르다고 놀림을 받는다면 그 아동을 편을 들어줄 수 있다.	.366	.299	-.040	.203	.542
68	기회가 된다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수업을 듣고 싶다.	.356	.096	-.122	.240	.336
50	친구를 사귀는데 있어서 국적(어느 나라 사람인지)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009	.611	.075	-.017	.409
57	피부색이나 얼굴생김새가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032	.545	.198	.081	.482
59	우리나라 사람들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 사람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170	.472	-.024	.237	.548
67	다문화가정 아동도 우리 반에서 리더역할(예: 학급임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26	.358	.046	.215	.385
28	다른 나라 사람의 피부색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082	.343	-.023	.048	.561
38	다문화가정 아동을 외모가 다르다고 놀리지 않는다.	-.039	.310	.078	.166	.293
72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어머니가 우리나라 말이 아닌 외국어를 사용하면 싫다.	-.097	.164	.503	.047	.312
41	다문화가정 아동이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만 나와 같은 한국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07	.179	.447	-.039	.237
11	다문화가정 아동보다 내가 무엇이든지 잘한다고 느낀다.	-.052	-.083	.438	.170	.248
36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228	-.045	.435	-.211	.255
43	다문화가정 아동과 같은 반이 되고 싶지 않다.	.292	.125	.430	-.026	.487
45	백인은 백인끼리, 흑인은 흑인끼리, 아시아인은 아시아인끼리 지내야한다고 생각한다.	-.011	.291	.422	.034	.386
37	다문화가정 아동이 피부색이나 얼굴모양이 다르다고 놀림 받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288	-.208	.372	.150	.328
61	얼굴생김새와 피부색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162	.250	.342	-.003	.422
25	다문화가정 아동이 어머니가 외국인이라서 놀림을 받으면 마음이 아프다.	.068	.032	.030	.599	.408
60	국가에서 다문화가정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많이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039	.184	-.030	.480	.385
24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싫다.	.204	-.013	.040	.472	.407
9	다문화가정 아동이 얼굴생김새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으면 불쌍하다.	-.024	.117	-.025	.422	.214
요인분산		5.62	3.02	2.67	2.56	
요인분산%(요인분산/전체공통분산)		40.57	21.76	19.24	18.43	

* 다문화 개방성에 해당하는 문항(72, 41, 11, 36, 43, 45, 37, 61)은 응답을 역코딩한 후 산출한 수치임

미만인 6문항을 제거하였다. 그 결과 나머지 41문항을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최대요인부하량이 .30미만인 문항과 두 요인 이상에 걸쳐 비슷한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문항을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33문항을 선정하였다. 사각회전 후 산출된 최종 요인구조와 요인부하량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서 추출된 4개 하위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인은 예비문항 선정 시 관계형성에서의 유능성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해당요인을 다문화가정 아동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인 ‘다문화 관계형성능력’으로 명명하였다(15문항). 두 번째 요인은 외모나 문화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관련되므로 ‘다문화 인식’으로 명명하였다(6문항). 세 번째 요인은 다문화가정 및 아동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고 같은 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태도와 관련되므로 ‘다문화 개방성’으로 명명하였다(8문항). 네 번째 요인은 다문화가정과 아동의 입장, 생각, 행동에 공감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되므로 ‘다문화 공감’으

로 명명하였다(4문항).

다음으로 요인분석 후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의 요인 간 상관관계 및 요인타당도(factorial validity)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는 .41~.69 사이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하위요인 점수와 총점 간의 상관을 나타내는 요인타당도는 .74~.88 사이로 나타났다.

3.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의 신뢰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 반분신뢰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우선 다문화 수용성 척도의 각 하위 요인에 속한 문항들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하나의 동일한 개념을 평가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내적 합치도인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다문화 수용성 전체에 있어서는 .94, 각 하위요인에서는 .68~.93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수용성 점수가 시간적 변화에 얼마나 안정적인지 살펴보기 위해 검사를 실시한 지 3주 후에 다시 재검사를 하여 하위요인별로 두 점수 간의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검사-재검사 하위요인별 상관계수가 .64~.82로 나타났으며, 다문화 수용성 전체에 있어서는 .81로 나타났다.

끝으로 다문화 수용성 전체문항을 반으로 나누어 반분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89로 나타났다. 하나의 검사를 양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홀수번호 문항과 짝수번호 문항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표 4. 다문화 수용성 척도의 요인 간 상관관계 및 요인타당도 (n=392)

요인	1	2	3	4
다문화 관계 형성능력	.88**			
다문화 인식	.51**	.74**		
다문화 개방성	.69**	.49**	.84**	
다문화 공감	.65**	.41**	.58**	.80**

** $p < .01$. (대각선상의 값은 요인타당도 계수)

표 5. 다문화 수용성 척도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수	Cronbach's α (n=392)	검사-재검사신뢰도 (n=74)	반분신뢰도 (n=392)
1. 다문화 관계형성능력	15	.93	.82	.89
2. 다문화 인식	6	.74	.64	
3. 다문화 개방성	8	.76	.68	
4. 다문화 공감	4	.68	.69	

본 연구에서도 문항을 홀수와 짝수번호 문항으로 나누어 두 집단 간의 상관계수를 구한 후 Spearman-Brown 공식에 의해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라는 한국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일반가정 아동이 다문화가정 아동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을 구성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다문화 수용성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그 결과, 4가지 요인을 규명할 수 있었고, 이를 다문화 관계형성능력, 다문화 인식, 다문화 개방성, 다문화 공감으로 명명하였다.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를 구성하는 1요인은 ‘다문화 관계형성능력’으로, 일반가정 아동이 다문화가정 아동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석하여 적절하게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일반가정 아동이 다문화가정 아동과 접촉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다문화가정 아동이 한국사회에 얼마나 잘 적

응할지가 결정될 것이다. 다문화 관계형성능력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다문화가정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행동에 관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즉, 다문화가정 아동과 같이 밥을 먹거나 집에 가는 행동과 함께 다문화가정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모임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앞서 이루어진 심층면접에 따르면, 일반가정 아동들은 다문화가정 아동이 잘하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고 다문화가정 아동이 먼저 다가오면 받아주겠지만, 일반가정 아동 스스로 먼저 다가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매우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 사람들과 접촉하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하므로 (Bhawuk & Brislin, 1992), 이러한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앞으로 다문화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 증가될 전망이다(Sercu, 2004). 그러므로 다문화가정 아동과의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제 1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다문화 수용성 척도를 구성하는 2요인은 ‘다문화 인식’으로, 문화와 외모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관련된 문

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피부색이나 생김새가 서로 다를 수 있고 그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며 친구로 사귀는 데 있어서도 국적이나 외모가 다르더라도 괜찮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문화적 환경인 21세기에 대부분의 삶을 보낼 아동이 다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언어, 종교, 민족, 인종 등 다양성이 아동의 사회적 역량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다른 문화나 민족에 대한 두려움이나 편견 등으로 가려진다면 훼손될 것이다(Keats, 2000). 따라서 사회 내에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차이를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다문화사회에서는 문화와 외모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다문화를 수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다문화 수용성 척도를 구성하는 3요인은 ‘다문화 개방성’으로, 대체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없이 나와 같은 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태도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문화 개방성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보면, 앞으로 다문화가정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거나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어머니가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을 이해하고 다문화가정 아동을 같은 한국인으로 이해하는 등 개방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건복지부(2005)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아동의 17.6%가 집단따돌림을 경험했으며, 따돌림 이유는 ‘엄마가 외국인이어서’가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가정 아동

의 집단따돌림 경험 비율 13.4%와 비교할 때 비율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따돌림을 당한 이유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 아동의 경우 따돌림의 가장 큰 이유가 ‘잘난 척했기 때문’인 것과는 달리 다문화가정 아동은 어머니의 출신국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재분, 2008). 이러한 결과는 일반가족 아동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같은 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 개방성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아동이 중·고교 진학 연령대로 진입할 경우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편견과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 사회문제가 될 우려가 크다. 2001년 필벽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혼혈인 중 9.4%가 초등학교 중퇴, 17.5%가 중학교 중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인의 경우 1.1%수준임을 감안한다면 매우 심각한 현상이다(김현희, 2007).

그러므로 다문화사회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나 사람들에 대한 개방성은 필수적인 요인이다.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된 선행연구(Kelley & Meyers, 1995; Lynch, 1992; Van der Zee & Oudenhoven, 2000)에서도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개방성을 다문화 수용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었다. 그 이유는 소수민족이나 소수인종 사람들의 부적응 문제는 그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편견적이고 차별적인 태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학령기 아동의 경우, 사회에서 널리 퍼진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고 이러한 인식이나 태도가 성인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에 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같은 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다문화 수용성 척도를 구성하는 4요인은 '다문화 공감'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입장, 생각, 행동에 공감하는 것에 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아동이 어머니가 외국인이라서 놀림을 받으면 같이 마음이 아프거나 정책적으로 도와주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다른 문화 사람들에 대한 공감은 태도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도움 행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tephan & Finlay, 1999). 공감은 문화 간 감수성이나 수용성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서로에 대한 공감이 문화 간 라포를 형성할 수 있다(Chen, 1997). 일반가정 아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입장을 잘 공감할수록 편견은 더 감소할 것이다. 본 연구에 앞서 실시하였던 심층면접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다문화가정 아동은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친구와, 혼혈아라고 놀리지 않고 평범하게 대해주는 친구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Wang 등(2003)은 일반적인 공감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자신과 다른 문화의 사람에 대한 공감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다문화수용성의 하위요인으로 다문화 공감 요인이 포함된 것은 일반적인 공감척도로 평가할 수 없는 민족이나 문화적인 공감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다문화 수용성 척도의 하위요인은 기존의 다문화 수용성 관련 척도들에서 나타난 공통요인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요인 중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개방성 요인은 인지적 측면으로, 다문화 공감 요인은 정서적 측면으로, 다문화 관계형성능력 요인은 행동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문화 간 수용성을 측정하는 척도는 정서, 인지, 행동차원을 모두 고려해서 개발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Bhawuk & Brislin, 1992)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개발된 다문화 수용성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인 Cronbach's α , 검사-재검사 신뢰도, 그리고 반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다른 민족이나 인종, 문화에 대한 태도를 연구했던 기존의 연구들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사용된 척도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거나(Katz & Zalk, 1978; McGlothlin, 2004),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경우(Katz, Sohn, & Zalk, 1975; Katz & Zalk, 1978), 혹은 신뢰도를 보고는 했지만 너무 낮아서 연구결과에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한 경우(Phinney, 1990)들이다.

기존의 척도들은 주로 내적 합치도 계수만을 보고하였다. 이들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의 범위는 .65~.93이고, 각 척도의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계수의 범위는 .39~.96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다문화 수용성 척도의 신뢰도 산출결과, 다문화 수용성 전체에 있어서 Cronbach's α 계수는 .94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로는 .68~.93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수용성 점수가 시간의 변화에 얼마

나 안정적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3주 간격을 두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 수용성 전체의 상관계수는 .81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별로는 상관계수가 .64~.82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의 척도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보고하지 않았다. Ponterotto 등(1998)이 보고한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상관계수는 .80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16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수가 너무 적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다문화 수용성 척도의 신뢰도 상관계수는 74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그 결과도 수용할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다문화 수용성 척도의 반분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89로 높게 나타나 바람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신뢰도를 검증하는 각기 다른 방법은 측정의 일관성(consistency)문제를 각기 다른 시각에서 보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한 연구에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정옥분, 2008).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인 Cronbach's α , 검사-재검사 신뢰도, 그리고 반분신뢰도 등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도 높게 나타나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생각된다.

앞서 살펴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는 서구사회와 달리 급격한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에 적합한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의 증거를 확보한 척도를 개발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초석

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끝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소수집단 중의 하나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이외에 한국의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유형에는 새터민, 외국인 이주노동자 집단도 있으므로 각 집단의 특성과 배경에 적합한 다문화 수용성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형성된 다른 인종이나 문화에 대한 태도가 성인기까지 이어지며, 다문화가정 아동이 초등학교에서 친구에게 놀림을 받거나 따돌림을 받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었기 때문에 아동기가 중요하다고 보고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수용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아동기에 형성된 태도가 이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후속연구에서 이를 확장하여 청소년, 성인 등 각기 다른 발달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제작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변화과정을 장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종단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즉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와 같은 횡단연구에서는 알 수가 없으므로 연령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발달과정을 종단연구를 통해 밝혀냄으로써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넷째,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에 대한 연구가 이제 시작된 만큼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동시에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척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곽금주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 다문화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패턴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1-26.
- 교육인적자원부 (2007).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계획.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과.
- 김옥순 (2008). 한·중 예비교사들의 문화 간 감수성 비교연구. 비교교육연구, 18(1), 193-217.
- 김이선, 황정미, 이진영 (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Ⅰ): 한국사회의 수용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현희 (2007). 특집: 현대의 다문화가족; 한국의 결혼이민배경과 현황. 민족연구, 31(0), 6-50.
- 김혜숙 (2007).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91-104.
- 동아일보 (2009.2.2). “달라도 다함께-다문화가 힘이다”, 사회면.
- 모경환, 황혜원 (2007). 중등교사들의 다문화적 인식에 대한 연구: 수도권 국어·사회과 교사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39(3), 79-100.
- 박성연 (2001). 그림책을 활용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인종 및 타문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법무부 (2008). 2008년도 출입국관리통계연보. 법무부.
-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서현, 이승은 (2007).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25-47.
- 송미영 (2010). 한국의 다문화의식: 다문화 수용성의 원인분석. 민족연구, 41(0), 74-97.
- 양계민 (2009).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59-79.
- 양순미 (2007).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의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과 가족생활행복에 작용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559-576.
- 오성배 (2007). 국제결혼 자녀의 교육환경과 문제. 교육비평, 22, 186-213.
- 이영주 (2007). 국제 결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83-105.
- 이재분 (2008). 한국 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재학 현황과 문제. 이주가정 청소년 정책수립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무지개청소년센터

- 터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17-133.
- 이진숙 (2007).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양육실태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한 연구. 열린 유아교육연구, 12(6), 21-42.
- 정옥분 (2008). 아동학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조혜영, 이창호, 권순희, 서덕희, 이은하 (200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실태와 교사·학생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미숙, 김경숙, 윤현숙 (2008). 다문화교육활동이 유아의 반편견 인식 및 다른 문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 17(2), 65-79.
- Banks, J. A. (1993). Multicultural education: Historical development, dimensions, and practice.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19, 3-49.
- Berry, J. W. (2001). A psychology of immigration. *Journal of Social Issue*, 57(3), 625-631.
- Bhawuk, D. P. S., & Brislin, R. (1992). The measurement of cultural sensitivity using the concept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6(4), 413-436.
- Chen, G. M. (1997). A review of the concept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Convention of the Pacific and Asian Communication Association, Honolulu, HI, January.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08 634.
- Chen, G. M., & Starosta, W. J. (200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47 525.
- Cross, W. E. (1971). Negro to black conversion experience: Toward a psychology of black liberation. *Black World*, 20(9), 13-27.
- Ellison, C. G., & Powers, D. A. (1994). The contact hypothesis and racial attitudes among Black Americans. *Social Science Quarterly*, 75(1), 385-400.
- Hammer, M. R., Bennett, M. J., & Wiseman, R. (2003). Measur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The 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Intercultur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7(4), 421-443.
- Henry, G. B. (1986). *Cultural diversity awareness inventory*(Rep. No. PS 016636). East Lansing, MI: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Teacher Learning.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282 657.
- Johnson, P. E., & Johnson, R. E. (1996). The role of concrete-abstract thinking levels in teachers' multiethnic beliefs.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ducation*, 29(3), 134-140.
- Katz, P. A., Sohn, M., & Zalk, S. R. (1975). Perceptual concomitants of racial attitudes in urban grade-school children. *Development Psychology*, 11(2), 135-144.
- Katz, P. A., & Zalk, S. R. (1978). Modification of children's racial attitudes. *Developmental Psychology*, 14(5), 447-461.
- Keats, D. M. (2000). Cross-cultural studies in child development in Asian contexts. *Cross-Cultural Research*, 34(4), 339-350.

- Kelly, C., & Meyers, J. (1995). *The cross-cultural adaptability inventory manual*. Minneapolis, MN: National Computer System.
- Lynch, E. W. (1992). Developing cross-cultural competence. In E. W. Lynch & M. J. Hanson (Eds.), *A guide for working with young children and their families*(pp.35-62). Baltimore: Paul H. Brooks.
- Marshall, P. L. (1996). Multicultural teaching concern: New dimensions in the area of teacher concerns research?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9(6), 371-379.
- McGlothlin, H. E. (2004). *Children's decision-making about social relationships: The impact of similarity, racial attitudes, and intergroup contac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MD.
- Munroe, A., & Pearson, C. (2006). The munroe multicultural attitude scale questionnaire; A new instrument for multicultural studi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6(5), 819-834.
- Phinney, J. S. (1990). Ethnic identity in adolescents and adults: Review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08(3), 499-514.
- Ponterotto, J. G., Meldelsohn, J., & Belizaire, L. (1998). Assessing teacher multicultural competence: Self-report instruments, observer report evaluations, and a portfolio assessment. In D. B. Pope-Davis, H. L. K. Coleman, W. M. Liu, & R. L. Toporek (Eds.), *Handbook of multicultural competencies*(pp.191-210). California: Sage.
- Sercu, L. (2004). Assessing intercultural competence: A framework for systematic test development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and beyond. *Intercultural Education*, 15(1), 73-90.
- Stephan, W. G., & Finlay, K. (1999). The role of empathy in improving intergroup relations. *Journal of Social Issue*, 55(4), 729-743.
- Suinn, R. M., Ahuna, C., & Khoo, G. (1992). The Suinn-Lew asian self-identity acculturation scale: Concurrent and factorial validati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2(4), 1041-1046.
- Van der Zee, K. I., & Van Oudenhoven, J. P. (2000). The multicultural personality questionnaire: A multidimensional instrument of multicultural effectivenes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4(4), 291-309.
- Wang, Y. W., Davidson, M., Yakushko, O. F., Savoy, H. B., Tan, J. A., & Bleier, J. K. (2003). The scale of ethnocultural empathy: Development, validation, and reliabil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2), 221-234.
- Williams, J. E., Best, D. L., & Boswell, D. A. (1975). The measurement of children's racial attitudes in the early school year. *Child Development*, 46(2), 494-500.
- Zea, M. C., Asner-self, K. K., Birman, D., & Buki, L. P. (2003). The abbreviated multidimensional acculturation scale: Empirical validation with two latino/latina sample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9(2), 107-126.
- Zwick, W. R., & Velicer, W. F. (1986). Comparison of five rules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components to retain. *Psychological Bulletin*, 99(3), 432-442.

1차 원고접수 : 2010. 09. 29.

수정원고접수 : 2010. 11. 18.

최종게재결정 : 2010. 12. 0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cultural Acceptance Inventory for Korean Children

Kim, MeeJean

Korea University Medical Center
Day-care Center

Chung, OckBoo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then test the validity of a Multicultural Acceptance Inventory(MAI) for Korean children. The preliminary Multicultural Acceptance Inventory was develop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of issues related to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which were conduct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multicultural context in Korea.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92 children from the 4th to 6th grades from five elementary schools in Seoul, Kyunggi-do and Incheon. The data were analyzed respectively by descriptive statistics, Cronbach's alpha, test-retest reliability, split-half reliability, and explanatory factor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1) The content validity of the inventory was confirmed by two groups of experts.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Inventory was supported b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re were 4 sub-factors of 33 items in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Inventory: multicultural competence, multicultural awareness, multicultural openness, and multicultural empathy. 2) The reliability of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Inventory indicated adequate internal consistency, test-retest reliability, and split-half reliability. These results support both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Inventory.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ies, multicultural acceptance, inventory development